

이스라엘 징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에스겔 37:1-14, 로마서 11:25-27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성일로 지낼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언약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였사오니,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한다. 내가 청년 때 양육하던 학생이 있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청년이다. 이 청년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셋 다 똑똑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이다. 이유를 물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봤다.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녔었다. 신앙생활을 잘 했다. 직장 사장도 장로님인데, 직장이 교회 같다.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이 친구가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20대부터 40대가 된 지금까지 어머니만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한글을 모르는 어머니에게 글을 가르쳐서, 성경찬송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이 친구에게 청년 때 알려진 것이 있었다. “부모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라.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가장 감사해야 한다. 너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너를 버렸다 해도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효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서 모시고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다. ‘너무 잘 했다. 효도를 잘 했다. 정말로 이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를 갑자기 불러가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평생 어머니 모시는 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유를 찾고 네 삶의 응답을 받아라’ 하고 메시지를 주었다. 부모님과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 뭔가가 안 맞을 수도 있다. 명진보육원에 있는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가 가출을 했다고 상담을 요청해 왔다. 왜 집에 들어가기 싫은지를 물어봤더니, 부모님에게 맞았다는 것이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옷에 피가 말라붙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출한 아이에게 말해 주었다. “네가 부모님께 맞은 것을 감사해야 해. 옆에 있는 네 친구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 때려 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어. 네가 맞을 일을 뭐가 했을 거야. 부모님이 심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에스겔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잘못을 했다. 하나님은 참다참다 못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리고 약속하신다. 징계를 내리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은가.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것이다. 어버이날에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감사히 받아들이야 되겠다. 심하게 맞고 징계받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론 : 에스겔서 개관

(1)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후손이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입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 제사는 성전에서 지내야 하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니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제사장 직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되어 온 후 5년째 될 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런 말이 에스겔에 많이 나온다. 제사가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 대언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2) 에스겔은 포로된 후 5년째 되는 해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22년 정도 사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요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활동했다. 제3:17에는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나. 말씀을 선포한 에스겔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작곡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 경계하게 하는 인물이 파수꾼이다. 이 시대에도 파수꾼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하고 꾸짖는 사람이 없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이런 선생님, 이런 부모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는 사람

이 없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란다. 강단에서 좋은 말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대언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구나, 듣고 내가 나를 바꾸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바꾸게 되기를 바란다. 전도자 무리가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메시지를 들은 후 어떤 성도가 와서 말했다. “저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인 줄 믿어야 한다. 징계를 자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큰 잘못도 없는데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당시는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던 애굽, 앗수르, 바벨론이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은 축복의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재앙의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변은 여러 강대국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밥을 깨나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전부 재앙의 조건이 된다. 우리의 기준이 물질, 세속, 육신, 성공 중심이라면, 놀러다니는 것 중심이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맞추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매를 맞는 것이 축복인 것이다. 매를 맞기 전에 스스로 영적 서민의 자리에 가시기 바란다. 예배에 나와라.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에 나와라. 현장에서 정말 말씀운동을 인생의 첫 번째로 삼아라.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시간이 있는데 전도할 시간만 없다면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마음의 상태 아닌가? 어리다고 전도 못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이미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친구를 깨워서 데리고 함께 갔다. 장로님들은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집사님, 권사님은 공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은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 나라 민족 세계가 살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 때문에 나라 민족 세계와 후대가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한다.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재앙을 막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한다.

(4) 왜 하나님이 이런 핍박, 어려움을 주시는가. 유다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던지, 3차 포로 시기에는 2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했다. 먹을 것이 없었니까 자식을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왜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리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천 년 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기다리셨다. 북왕국에 31명의 왕이 있었지만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다. 남 왕국에도 7, 8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고, 그 의로운 자들에게도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앗수르를 통해 경고하셨다.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남왕국이 보게 하셨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로 침공해 왔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결국 3차 침공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며, 참고 또 참으신다. 그런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매박에 없다. 징계박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다. 타산지식을 삼아야 한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가정 안에서는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체질이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게 된다.

1.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이유와 그 내용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이유와 그 내용이다.

(1)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그에 대한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징계를 왜 주시는지 깨닫는 것이다.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맞고 적게 맞았으며 무엇으로 얼마나 맞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맞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도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히12:6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죽지 않으니 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때릴 수가 없다. 징계를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게 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징계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았다 하고 빠지니까 빌어야 한다. 저주의 문화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사람들은 자주 바꾸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 대신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대신 동성애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 남편은 여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무능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성경으로,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회를 복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히12:7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2)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 구체적인 잘못의 내용이 무엇인가?

①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 솔로몬 이후 대부분의 남북 왕조가 우상을 섬겼다.

② 둘째로,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권력인가. 성공인가. 지식인가. 부동산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습게 보신다. 하나님이 쓸어가시면 단숨에 없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남는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

③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솔거지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했다. “애굽 편에 서지 말고 바벨론 편에 서라.” 왕이 뭐라고 했는가? “선지자 주제에 무슨 소리냐. 정치는 우리가 더 잘 안다.” 그렇지 않다.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도 가끔 영안이 엄정 밝아질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여학생에게, ‘저 남학생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 하고 권유했는데, 여자가 싫다고 했다. 키가 작고 못 생겼다는 것이다. 이 여학생은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 남자 청년은 대기업 회장의 수행비서가 되었다. 원래 버스 회사에서 매년 측정하는 밀바닥 일을 했는데, 이것을 너무 성실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뽑혀서 회장의 수행비서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다. 여러분, 기도 외모도 보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가시기 바란다. 아멘을 안 하시지 않나. (웃음)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④ 넷째, 사회적으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백성을 착취하는 악행이 만연해 있었다. 이것을 바뀌어야만 하는데,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다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자폭탄 맞지 않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하위복의 축복을 주신다. 영원히 남는 축복을 주신다.

(3)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행을 오랫동안 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결국 엄청난 징벌을 내리셨다. 그것이 전쟁이었고, 멸망이었다. 처음에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속국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 나라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2.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던가?

(1)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불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2)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목표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과 포로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았다. 랍넛운동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흠어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숨겨진 자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이다. 구약의 언약을 전달할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약정경을 완성한 말씀의 민족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만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는 회당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포로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목표 중의 하나였다.

(3)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아멘 크게 안 나을 줄 알았다. 여러분이 너무 복음적이어서. (웃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창12:3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롬12:19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우리의 대적, 우리를 괴롭히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영적인 상징이 이 속에 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뒤에는 원수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들이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다만 그 일에 쓰임 받는 이들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은 전해야 한다.

(4) 메시아 왕국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에스겔 43장에서 48장

까지 나오는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성전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예배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각 지파가 차지하게 될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5) 에스겔을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다. 에스겔은 포로생활 동안 깊은 기도를 누린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였다. 에스겔 1장을 보면 마치 우주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외계인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런 예화와 환상이 참 많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속국된 때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상징적, 비유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시대에는 동물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상징, 비밀, 계시, 미래가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시대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파수꾼만 있으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어떤 강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6)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과 심판에 빠져 버리고 만다면, 나는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시지 않겠는가? 이번에 5월에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된다. 못 나오는 분들도 현장에서 캠프를 해야 한다. 내가 내 친척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친척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었다. 정확한 복음은 몰랐지만,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예수 믿으니까 잘 살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주변의 형제, 사촌, 육촌이 다 망했다. 엄청난 문제가 왔다. 어릴 때부터 나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문제에 연루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학교 교사였던 형은 학교에서 잘리게 되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이다. 재앙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온다. 어설픈게 알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온다고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나도 확신을 안 했었다. ‘그래, 대중 잘 살겠지.’ 그렇지 않았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백 년 동안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었다. 이때 에스겔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민족 말살의 위기를 보는 에스겔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었다.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깨달음을 줘서, 더 큰 문제가 오지 않게 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었다.

결론을 내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란다.

(1) 에스겔에서 얻을 수 있는 징계에 대한 영적 교훈이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외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뒤집어 보라. 말씀으로 새롭게 보고 바뀌어야 한다. 나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응답을 못 받게 되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라.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라. 우리 후대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에서부터 찾아내야 한다.

(2)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찾아내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우리나라에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희망이 없다고 하지 않나. 이 험악한 세상,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선진국가,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목사지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함께 살아가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협동해서 살도록 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주도적 역할을 중직자와 랍넛들이 하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면서 실천 계획,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나라를 가장 행복한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드는 복음 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마디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다가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며,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성도, 교회, 교단,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